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

# 현실 속 단절에 관한 작품 연구

2020년 0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조소전공
김 지 수

# 현실 속 단절에 관한 작품 연구

지도교수 문 주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0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조소전공

김 지 수


김지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01월

위 원 장 _____ 이 용 덕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권 대 훈 _____ (인)

위 원 _____ 이 종 건 _____ (인)

#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노마디즘Nomadism 특성을 갖춘 개인이 사고하는 방식과 그것을 기반으로 실행한 실험들에 관한 작품 연구이다. 본 논문의 연구자는 국제적인 도시에서 성장했으며 단기간 거주하고 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랐다. 단기적인 관계 형성으로 인해 어딘가에 소속되는 것보다는 무소속이 익숙한 유목민적인 성향이 생겼으며 그것은 연구자의 작업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이러한 성장 배경에 더불어 동시대적 디지털 노마드 현상으로 인해 받은 영향으로 연구자는 본인의 감각이 더욱 리얼리티와 분리되고 있다고 느끼며 그러한 분리성을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다.

본인은 현실에서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느끼며 그러한 상태를 인지한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의 대부분 수긍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느껴지는 불분명함과 인지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움직인다. 이러한 수긍과 극복을 위한 움직임의 결과물이 미술작품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추상적 조각, 영상 그리고 가변적 설치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작품에서 본인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동시에 분리된 현실과 내면의 경계선의 접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접점을 찾기 위해 먼저 '현실 속 단절'에서 본인의 단절 된 현상을 '이동하는 육체'와 '고정된 주체'로 설명하였고, '단절 속 행위'에서 단절의 상태에 대한 행위와 특징에 대하여 서술했다.

다음으로 작품에 주로 등장하는 재료 혹은 현상의 특징들을 설명하여 단절된 상태에서의 주체의 일상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론의 일관성을 성립하고자 했다. '현실적 상상의 밑바탕'에서는 대량생산품이라는 포괄적인 언어를 선택하여 환상과 현실의 연결고리를, '내면의 재구

성: 풍경'에서는 사고에서 비롯된 작업에 관하여, '현실의 재구성: 아파트'에서는 실제 풍경에서 얻는 영감에 대하여, '내면의 사고: 바다'에서는 바다와 사고의 상관관계를 논하였다.

본인은 대량생산품을 기반으로 한 비효율적인 물질들을 제작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는 매체는 투명한 박스 테이프와 색종이이다. 목적이 분명한 대량생산품의 용도를 달리해 불분명한 목적의 작품을 만들었다. 두 개의 매체를 이용한 작품과 더불어 같은 매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시각적으로 흡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투명성과 일시성이라는 원리로 만들어낸 작품들도 본 논문에서 함께 다루었다.

인간은 단절된 상태에서도 생동한다. 본 연구자는 본인이 인식하는 현실을 통해 사고하고 행동한다. 그것들의 결과물은 일시적인 순간과 사건들의 집합체로 작품으로 귀결되었다. 작품들은 구체적인 결과물을 목표하기보다는 내면의 사고를 유출하는 경로로 사용되었기에 실험적인 요소를 갖춘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연구자는 작품 연구를 통해 단절과 절망, 실패와 극복을 경험했으며 그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키워드: 노마디즘Nomadism, 단절, 이동, 상상, 대량생산품**
**학번: 2017-27402**

# 목차

국문 초록 ····· iii

현실 속 단절 ····· 1
이동하는 육체 ····· 1
고정된 주체 ····· 3

단절 속 행위 ····· 5
현실적 상상의 밑바당: 대량생산품 ····· 6
내면의 재구성: 풍경 ····· 7
현실의 재구성: 아파트 ····· 8
내면의 사고: 바다 ····· 9

작품설명 ····· 11

마치며 ····· 24

작품목록 ····· 26
참고문헌 ····· 27

# 현실 속 단절

‘나’는 무음 처리된 텔레비전 스크린을 쳐다보는 상태에 놓인 것 같은 현상을 종종 마주한다. 이때 ‘나’라는 존재는 몸이라는 형태의 테두리를 경계선으로 ‘나’ 이외의 것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몸과 마음은 뿌리내리지 못한 채로 존재한다. 현실에 접속하지 못한 상태의 몸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입에서 내뱉어지는 말들은 유의미한 대화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발성 기관의 수축과 이완의 반복을 통한 의미 없는 공기의 모음집이며 귓가로 흘러 들어가는 가청주파수에 불과하다.

본인은 이러한 ‘나’의 현상을 자각하고 외부와의 단절에 의해 상실한 감각들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그 상태에 속해 작업하는 동시에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시도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이며 또다시 단절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나’의 현실 속 단절에 대한 근원을 설명하고 그 후 단절 속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서술하려 한다. 본인은 노마드적 예술을 추구하기보다 일종의 분리된 현실 속에서 작은 시도를 행한다. 그것들은 성공하거나 실패한 상태로 완성이 되며, 하나의 집합체가 되어 시리즈로 탄생한다.

## 이동하는 육체

현대는 이동이 쉬운 시대이다. 여행이 자유롭고, 국가와 국가 간의 이동이 잦아졌다. 어린 시절에 아랍 에미리트로 이사했던 본인은 국제적인 도시에서 자라며 단기간 거주하고 이동하는 집단 속에서 성장했다. 물리적 이동으로 대부분의 관계는 2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기에 눈앞에 존재하는 것들이 종종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를 통해 관계와 물질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수 없으며 가끔은 본인이

인지하는 것보다 지속적이며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이동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나'라는 존재가 움직이는 만큼, 내가 아닌 것들 또한 이동하는 것을 보며 실질적인 변화와 흩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잦은 이동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은 가끔 회복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지속적인 것으로, 한 번 일어난 단절은 보통은 영구적이었다.

본인의 경우는 환경의 개선을 위해 선택적 이동을 한 경우로 정치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강제 이주자 혹은 망명자와는 다른 종류의 노마드이다. 질 들뢰즈의 「천개의 고원」에서도 유목민과 이주민은 다르게 구분된다. 유목민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지만 모든 지점은 어떠한 "궤적 위에 있는 중계점"[1]으로 그들은 "물을 얻을 수 있는 지점", "머물 수 있는 지점"을 알고 있지만 정주민과 반대로 물을 얻을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한 다음에는 바로 다른 곳으로 떠난다[2]. 유목민에게 모든 지점은 중계점이고 중계점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나 이동을 선택하는 사람들로 "움직이고 있을 때가 가장 진득하게 앉아 있는 때"이다[3]. 이동이 쉬워진 지금, 많은 사람이 여러 도시를 단기간 거주하며 이동하는 노마드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여러 문화를 거주하며 작업하는 작가의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처럼 고정된 삶을 선택할 수 없었고 어딘가에 속하지 못했으며 잦은 이동을 하며 고성소에 머물러 있는 상태의 삶을 경험했다. 이동의 상태는 곧 비고정적 상태이므로 주어진 현실에 접속하는 것이 아닌 무한한 다른 현실과 겹쳐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 현실과 중첩된 상태는 사실 하나의 현실과도 연결되지 못하는, 곧 단절된 상태에 속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인은 단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랜 기간을 보냈다.

---

1)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새물결 출판사, 2003, p.729
2)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새물결 출판사, 2003, p.729
3)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새물결 출판사, 2003, p.732

## 고정된 주체

편리성을 기반으로 발달한 기술은 오늘날의 사람들을 이동하지 않는 주체, 고정된 주체로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지하철 안에 앉아 있기만 해도 다른 역으로 옮겨진다. B는 인천공항 항공기에 착석한 뒤 14시간 후 미국 JFK 공항에 도착할 수 있다.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아도 주체는 이동할 수 있다. 수동적 상태에 놓인 주체는 앞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현실의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지 않아도 되며 파악할 시간도 없다. 현실에 대한 인지 자각 상태는 불분명해도 현재는 지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C의 육체는 실질적인 무동 상태 속에서 활성화된 가상의 세계로 활발히 이동한다. 손가락의 움직임만으로 다른 이와 소통할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라이브 방송 같은 형태를 통해 인간은 언제나 이동 가능하며 접속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인지하기 전에 여러 겹의 스크린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현실을 인지하는 시간보다 현실이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시간이 더 빠르다. 이로 인해 육체의 장소와 상관없이 정신은 노마드적 성향을 가지게 되며, 디지털 노마디즘[4]으로 인해 또다시 단절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더는 신을 믿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데이터와 주파수에 의존하고 살아간다. 육체는 더 이상 달리지 않지만, 지속적인 자극으로 정신은 24시간 개방되어 있다. 끝이 없는 시작은 되려 영원한 노출, 문 닫히지 않는 상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일종의 수동적 태세를 갖춘 형태에서는 누군가 먼저 다가오려 시도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닿지 않을 수도 있다. 물리적으로 고정적인 형태는 정신적인 고립과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현 사회의 디지털 유목민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

---

4) Daniel Schlagwein, 「The History of Digital Nomadism」, 2018, p.1

본인은 이러한 시대의 유목민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그러한 현상의 일부분인 ‘나’라는 주체가 만들어낸 작품들을 분석하여 본인이 해석하는 지금의 현실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려 했다. ‘나’는 현실과 단절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낙오자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단절의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상태를 수긍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시적인 순간, 혹은 포인트를 구현하는 시도를 통해 수동적 노마드가 아닌 선택적 노마드가 되기를 희망한다.

본 논문의 연구자는 본인이 어렴풋이 인지한 현실을 내면의 상상과 혼합하여 결과적으로 실험적인 작품들을 만들었다. 분절된 자아와 타자는 행동들을 통해 연결되는데 그 순간의  이미지를 눈 앞에 보이는 실질적인 물체로 표현하여 일종의 환상적 풀이를 시도했다. 본인은 이러한 환상을 통해 ‘나’와 ‘나’의 주변인들이 더 좋은 곳에 다다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업을 지속하였다. 순간에 속해있거나 단절된 상태를 탈피하기 위하여 행동하며 추상적인 소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단절 속 행위

먼저, ‘나’ 자신의 작업을 노마드적 성향으로 명명하기보다 노마드적 특성을 갖춘 개인이 사고하는 방식과 그것을 실행한 결과물인 작품에 관해 설명해보려 한다. 그러한 이유는 본인은 유목민적인 예술을 추구하기보다 유랑하는 단절된 어떠한 상태에 대한 극복을 위해 작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일종의 단절이 지속되는 일상 속에서 본인은 작은 시도를 행하고 그것들은 작품이 되고 합쳐져 시리즈가 된다. 질 들뢰즈의 「대담 1972~1990」에서 글쓰기를 기호 체계(code)가 아닌 하나의 유출(flux)로 명명한 것처럼 본인은 작품들이 구체적인 사고 체계를 형성한다는 목적을 가지지 않고, 사고를 유출하는 경로로 사용한다. 엉성해 보이는 이름들, 손톱들, 사물들 같은 개체성들이 내면을 휘저어 나와 화자라는 집합체를 구성하듯이 내가 만들어낸 것들은 미묘하고 사소할지라도 소용돌이치는 나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들이다.[5)]

더불어, 인간은 누구나 그러하듯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본인은 여러 유형의 사람 중 직접 무언가를 해야지만 자신의 용도를 인식하는 사람이다. 자리를 이동하는 이유, 이주를 행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존재하기 더 적합한 환경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더 적절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주당했던 것이며, 이주로 인해 맞이한 사회에 더 걸맞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효율적이며, 시행하고 있는 목적에적합한 인간만을 중요시하는 다수의 사회적 인식을 거부한다. 따라서 무언가를 하되, 그 목적이 자본주의의 목적과 동일하지 않기를 바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대량생산품을 사용하는 동시에 그것으로 쓸모없는 것들을 만든다. 성실하게 제작했지만 특별한 목적을 띄지 않는 비효율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어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단절된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운다

5)질 들뢰즈, 「대담 1972~1990」, 도서출판 솔, 1993, p.30

본인은 대량생산품을 작품의 주재료로 이용해 현실 속 단절을 인지하고 그를 수긍한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현실에서 추상적 물질로 풀어내는 동시에 현실의 움직임들을 내면으로 받아들여 사고체계를 형성한다. 작품에 자주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은 대부분 본인이 현실 속에서 자주 마주하는 재료들이다.

## 현실적 상상의 밑바당: 대량생산품

효율과 압축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대량생산품은 사회의 발전을 상징하는 부산물이다. 본인은 이미 많은 것이 미리 제작readymade된 대량생산품 시대에 태어났다. 대량으로 생산된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가 자연스럽고 직접 손으로 빚어낸 그릇은 장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개인의 손끝에서만 탄생할 수 있다. 인간이 만드는 것보다 기계가 빠르게 제작하는 정밀한 제품들이 넘쳐난다. 사과는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가 아니라 진공 포장되어 마트에 진열된 상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산자보다는 소비자의 삶을 산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 구매하고 재구매한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한 제품은 다시 손쉽게 폐기할 수 있다. 모든 생산품은 공장을 거쳐 손에 들어온다. 대량생산품을 재료로 사용하게 된다면 작품은 더 완전한 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나'라는 개인이 만든 것들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목적이 불분명한 오묘한 형태의 물질들이다.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포장하는 일이 잦았다. 당첨자에게 선물을 보내는 일을 한 달에 두어 번 했는데 그때마다 수없이 많은 대량생산품을 포장했다. 어느 날, 몇 시간에 걸쳐 갈색 서류 봉투로 선물을 포장하고 다시 테이프로 밀봉을 했더니 층층이 쌓인 갈색 종이들이 테이프로 인해 반짝거리는 광경이 아름다워 보였다. 국립중앙박물관 기프트샵에서는 꽃과 나비 모양이 반복 인쇄된 박스 테이프 크기의 데코 테이프를 발견했다. 대량생산품은 효율적인 포장 자재인 동시에 미적 감각을

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용도에 이용할 수 있는 테이프를 예술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면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가?

테이프를 삼십 센티미터 정도의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줄을 맞추어 하나의 면을 만든다. 그 위에 색종이 조각을 오려서 얹는다. 그리고 접착 면을 없애기 위해 그 위에 다시 테이프를 붙인다. 이런 작업을 반복하면 커다란 투명한 면이 생긴다. 투명하고 빛나는 테이프는 보석의 특성과 흡사하지만, 고급스럽고 귀한 것이라는 인식보다는 일상적인 측면이 강하다. 각도에 따라 반사되는 빛, 굴곡진 그림자는 얇은 면의 공간성을 확보한다. 처음 투명한 면을 만들었을 때는 흰 갤러리 벽에 고정되는 것을 상상했지만 실제로 면 넘어서의 장면에는 일상적인 나무, 바다, 해변 등의 자연의 풍경이 담긴다.

테이프는 투명하고 접착성이 강한 재료로 가볍지만 끈끈하고, 얇지만 분명한 막을 형성한다. 그 안에 등장하는 색종이 조각들은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로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로 투명한 면을 채운다. 가볍고,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면을 생성해나간다. 이는 테이프가 등장하지 않는 다른 작품들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작업들은 대부분 얇고, 무겁지 않으며, 강렬한 시각적 요소가 있기보다 은근하게 반짝이는 형태이다.

## 내면의 재구성: 풍경

떠오르는 생각으로 만든 것들이 하나, 둘 생각의 조각으로 현실에 놓이고 그것들은 곧 하나의 장면을 이루어 추상적 풍경이 된다. ‘나’라는 존재가 만든 것들은 ‘나’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적절한 단어로 명명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을 실제 공간에 구성하고 나열하여 피상적이었던 내면의 광경을 구체화한다. ‘나’의 사고물질은 대부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조립과 분리가 쉬워 원본의 형태는 사라지고 사진, 혹은 다른 기록의 형태로 존재한다.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곧 다른 생각으로 덮어지거나 사라진다. 그렇기에 습작에 대한 작업은 긴 시간 머무르기보다 순간 반짝이는 생각들로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작품들은 그 공간에 순간적으로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으며 무겁지도 않아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얇은 막, 혹은 공기처럼 가벼운 형태로 떠 있는 상태가 적당하다. 실재하며 반짝이는 순간 그것을 통해 인지하는 투명한 면 넘어서의 풍경이 도드라지는, 실제 공간과의 상승효과를 이룰 때 효과적인 작품의 형태를 갖춘다. 현실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생각이 재현represent되어 다시 현실에 나타난다.

## 현실의 재구성: 아파트

현실은 곧 틀이라고도 칭할 수 있다. 정해진 틀 속에서 본인이 목격한 시각적 현상을 흡수하여 작업한다. 풍경은 당연히 한 개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장소에 따라 변하기에 그에 맞춰 작업의 결과물도 변화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의 풍경은 반복적으로 구축된 아파트라는 명칭의 건축물이다. '나'의 시선에서 아파트는 반듯하게 뻗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기적인 직선의 특성은 작업에서 뼈대의 형태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선의 형태는 상대적으로 산업화하지 않은 자연적 풍경과 대조되어 나타난다. 반복 구조는 현실이고, 대자연을 마주하는 특별한 순간이다. 일상과 비일상이 만났을 때의 감정에 몰두하고 매일 목격한 풍경들을 되새김질하고 풀어내며 작업한다.

문득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걷어보니 반대편에 보이는 아파트의 풍경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비가 오는 날이어서 유독 그랬는지도 모른다. 베란다에 설치된 철창살, 빗물에 젖어 밝은 파스텔 톤이었던 아파트 벽은 짙은 회색빛이 돌았고 아스팔트 바닥은 짙은 검은색으로 보였

다. 창문은 너무 많고, 전부 커튼이 쳐있다. 커튼을 걷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남의 집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 또한 두려워 재빨리 생각을 바꿨다. 이런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래, 우리는 이런 걸 안 좋아하지.”라고 말하다 서둘러 “너는 우리라는 말을 안 좋아하지.”라고 다시 말했다. ‘우리’는 ‘너’와 ‘내’가 아니라 ‘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그렇게 나보다는 우리가 현실이고, 수만명의 우리는 아파트에 산다.

## 내면의 사고: 바다

작품에는 바다가 자주 등장한다. 처음에는 여행의 배경으로, 그 후에는 재촬영과 재현을 통해 명상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나’는 종종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상과 다른 풍경을 찾아 나서며 그럴 때 주로 바다로 간다. 바다는 깊고 속을 알 수 없지만 찾아가면 언제나 동일한 곳에 존재한다. 하늘과 맞닿은 바다는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거칠다. 고요한 수평선도, 철썩이는 파도도 항상 존재한다. 해변에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라는 존재 속의 바다도 환기가 된다. 작품 속에서 바다는 실제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추상적인 바다의 형태로도 이용된다.

바다는 특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운명적인 장소이다. 바다의 물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마음이 일렁이는 듯, 멜랑콜리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바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내면의, 사고의 움직임과 동일하다. 또한 수평선은 안도감과 외로움을 불러일으킨다. 바다는 실재의 광대한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바다는 국경도 없고 주인도 없는 유랑하는 자연이다. 그렇지만 바다는 또 누군가의 일상일 것이다. 우노 구니이치의 해석에 의하면 자연은 노스탤지어도 유토피아도 아니며 끊임없이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리얼리티라고 한다. ‘나’의 환상 또한 머릿속에만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라는 현실에서 비롯되었고, 현실에도 존재하기에 내면의 바다와

실제 바다, 환상과 현실은 동일하다고도 할 수 있다.

유난히 바빴던 겨울,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 사이에서 갈등하던 때에 가족과 함께 생일을 맞이했다. 축하의 의미로 우리는 바다로 떠났다. 주중의 강릉 바다는 방학이라 매서운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케이크를 가지고 물가로 갔다. 겨울 부츠를 신었지만, 모래가 신발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하늘이 밝으니 바닷물도 맑았다. 바다를 보며 초를 불었다. 모두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과 함께 한 해가 잘 지나가길 빌었다. 이제 '나'는 이주하지 않지만 바닷물은 끊임없이 흐를 것이다. 일렁이는 바다의 수면을 바라보고 있자니 흡사 '나'의 사고가 물결치는 것 같았다.[6)]

6)우노 구니이치, 「들뢰즈, 유동의 철학」, 도서출판 그린비, 2008, p.279

# 작품설명

[작품 1] <꽃과 나비 박스>, 60 x 30 x 180 cm, 박스, 한지, 테이프, 2017

상시 이동 중이라는 것은 기존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늘 이동한다는 의미다. 이는 기존의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나 새로운 교류가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잦은 만남과 헤어짐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그래서 비록 본인과 관계 없는 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작품이라도 현재 존재하는 것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작품이 한 장소에 고정되지 못할 것을 알기에 언젠가 있을 이동을 예상하였고,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속성에 착안하여 잦은 이사로 집에 쌓여 있는 종이박스를 택하였다. 그리고 이 종이박스 위에 테이프를 붙여 작업하였다.

그중 속을 비운 몇 개의 종이 박스에는 꽃과 나비 패턴의 박스 테이프를 둘렀다. 다른 박스에는 테이프에 한지 조각을 오려 붙여 덮었다. 또 다른 박스는 분홍색 덕테이프와 한지 조각들을 사용해 꾸몄다. 그리고 그 박스들을 층층이 쌓아 올렸다.

작품에 사용한 종이 박스는 일반적인 박스와 다르다. 이 박스들은 이동하는 과정의 고난과 시련을 감내한 박스들이다. 변명하자면 이 박스는 오랜 시간 망가지지 않고 견고한 상태로 먼 거리를 이동했다. 사막의 건조한 기후와 모래바람도 견뎌냈으며 바닷물과 해풍에도 눅눅해지지 않았다. 못 알아듣는 언어들의 틈 속에서도, 몸통에 알 수 없는 언어가 적힐 때도 꿋꿋이 버텼다. 그렇게 화물선을 타고 바다 위에서 삼십일을 견디고 몇만 리를 넘어 한국에 도착했다. 물론 소재가 일반 운송용 택배 박스보다 더 견고한 골판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동일한 테이프로 박스를 덮어도 차이가 난다. 물론, 그 차이 또한 본인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환상일 것이다.

[작품 2] <테이프 Kota Kinabalu>, 싱글 채널 비디오 , 3’00”, 2018

작품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어디에나 둘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그 위치에 따라 이미지는 어떻게나 변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알록달록한 투명 테이프 면의 여행을 기록한즉흥적인 상황이 반영된 짧은 영상이다.  영상에 보이는 한지 조각이 붙어있는 투명한 테이프 면은 코타키나발루의 바다 위에서 펄럭이다 이내 사람들 손에 이끌려 바다에 놓인다. 하지만 무게 때문에 수면에 떠 있지 못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한다.

테이프 면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코타키나발루로 갔다. 휴대하기 편한 작품은 어디에 두어도 눈에 띄지 않았으며, 어려움 없이 위치한 장소에 잘 녹아들었다. 새로운 도시에서 테이프 면을 펼치고자 가져갔지만, 주인 모르는 땅에 나의 면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 여행 중 만난 바다는 누구의 땅도 아닌 듯싶어 테이프 면을 펼쳤다. 물색이 투명한 파란색이라 테이프 면과 잘 어울렸다. 안타깝게도 일렁이는 물살 때문인지 바다와 잠깐 어울리다 이내 접혔다.

이동하기 쉬운 형태를 만들기 위해 제작했던 테이프 면은 이처럼 유동적인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한다. 효율적이지 않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노력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상한 점이 아이러니하다.

여행은 일상을 방해한다. 하지만 여행으로 인해 단절된 일상은 여행이 끝나고 재가동될 때 일시적으로 가벼워진다. 일상의 무게가 짓누를 때는 여행과 같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상상과 일치하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새로운 작품이 탄생한다.

[작품 3] <테이프 관악>, 2 x 2 x 2m, 혼합재료, 2018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어떤 이는 나뭇잎은 연두색일 때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다고 말하지만, 어떤 이는 여름의 울창한 짙은 녹색의 숲이 좋다고도 말한다. 이처럼 자연은 보는 이에 따라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진다. 이런 풍경이 누구에게나 더 아름답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점에 착안했다. 바다가 더 파랗게 보였으면 했고, 하늘도 항상 맑게 보이면 했다.

먼저 2m 크기의 흰색 정사각형 틀을 만들었다. 실내에 놓으니 갑갑해 보여 야외에서 재조립했다. 그 위에 한지 조각이 들어 있는 투명 테이프 면을 흰색 틀에 걸쳤다. 하늘과 나무를 배경 삼아 햇살을 받으니 테이프의 면이 반짝거리며 돋보인다. 고정되지 않은 투명한 면은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얇은 철사를 이용해 바닥에서 띄운 흰색 틀도 바람에 따라 휘청거린다. 직선으로 곧게 뻗은 얇은 줄은 현실에서는 중력에 의해 휠 수밖에 없다. 태양의 기운을 받으니 죽은 것도 살아난다. 인간이 만든 인공구조물을 벗어나 큐브를 통해 자연을 바라보게 한다. 야외에 전시된 큐브이기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큐브를 통해 잠시나마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작품이 순간 존재하듯이 지나가는 사람들 또한 순간적인 관람객이다.

[작품 4] <20181025 Test 1 십리포>, 싱글 채널 비디오, 10’00”, 2018

[작품 5] <20181217 Test 2 사천>, 싱글 채널 비디오, 05’00”, 2018

[작품 4] 오전 11시경, 갯벌 위에 흰색의 정사각형 오브제가 서 있다. 서서히 밀물이 들어오면서 정사각형 틀은 물에 잠긴다. 갯벌 풍경과 흰 큐브의 반투명하고 반짝이는 면을 멀리, 그리고 가까이에서 촬영했다. [작품 5]에서는 동틀녘, 반짝이는 필름 조각이 붙어있는 투명한 비닐 면이 바닷가 바닥에 놓여있다. 투명한 면은 밀려오는 파도에 바닷물과 엉키고 풀어지고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물속에 가라앉는다.

단절된 상태에 깊이 빠져들 때면 헤어나오기 위해 더 발버둥치기도 한다. 움직임으로 단절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다. 부정적인 상황에 빠져들기보다 '나'만의 긍정을 구축하려 함이다. 예를 들어, 먼바다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바다로 간다. 생각했던 푸른색의 바다가 아니라면 그때의 바다색에 어울리게 만들면 된다. 어깨가 아파 테이프를 못 쓰는 상황이라면, 몸에 압력을 덜 가하는 가벼운 재료를 쓰면 된다. 다만 형태가 흡사하고 소재와 자연이 결합했을 때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재료를 택했다. 테이프를 택했던 이유는 테이프가 가진 투명성, 얇은 두께, 방수성, 빛의 방향에 따라 반짝이는 속성 때문이었다. 이런 테이프의 대안으로 마찬가지의 속성을 가진 플라스틱 필름지를 택했다. 플라스틱 필름지는 테이프와 마찬가지로 바다에 띄워도 찢어지지 않고 빛을 반사한다.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렸다. 색종이를 대체해 오팔지 시트지를 필름지에 붙이고 물에 뜰 수 있는 가벼운 틀을 만들었다.

밀려오는 파도에 면은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못한다. 면의 위치와 행동들은 결국 순간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일시적인 현상을 영구적으로 기록할 방법을 연구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다큐멘터리 형식보다 추상적인 시각적 다큐멘테이션 영상을 구상했다. 물질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계속 제작하게 되면 무의미함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래서 만든 것을 기록하되, 기록만이 아닌 새로운 예술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것을 만들고자 했고 [작품 4], [작품 5]는 그런 형태에 대한 실험적인 시도였다.

[작품 6] <바다를 바라면 바다가 올까>, 가변 설치, found object, 도자, 유리구슬, 2018

결과물이 없는 형태의 작품을 만드는 무의미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시적이어도 물질적으로 작업을 소유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 지속적인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들은 작업 활동을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과로로 다친 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작업이라는 행위를 쉬는 방법밖에 없었다. 몸이 자유롭지 못할 때는 작업을 행했던 일상을 자유로운 형태로 회상하며 일상을 지속한다. 이 작품은 기억 속의 바다, 구체적으로는 코타키나발루의 바다에서의 순간을 상상하며 행한 작품이다.

작업실 벽의 일부였던 나무 판자벽 세 개를 한쪽 면에만 울트라마린 아크릴 물감으로 칠한 후 벽에서 분리해 개별 공간에 두었다. 흰색 유약을 덮은 도자 조각을 옆에 비치하고 그 주변에 유리구슬을 뿌렸오른손을 쓸 수 없으면 왼손을 쓰면 된다. 다. 사람은 본인이 속한 틀에 맞춰 작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팔을 쓸 수 없으니 발을 써서 흙을 폈다. 기억 속의 자연을 회상하며 일상에 바다를 불러본다. 상상을 통해 단절되었던 기억이 일상으로 불려 나온다. 파란색을 칠하는 행위는 작업실이 아닌 바닷가에 있다고 상상하게 만들었으며, 바다에 대한 열망은 이 환상을 현실로 불러내었다. 이제 작업실의 바다는 어디에서든 가변적인 바다가 될 수 있다. 이동식 바다가 탄생했다.

[작품 7] <20181025 Test 1에서 비롯된 직사각형>, 60 x 60 x 50 cm, 합판, 아크릴 물감, 2018

합판을 60센티미터가량의 넓이로 절단한 뒤에 위아래가 막힌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겉면에 파란색 물감을 섞어서 칠했다. 내가 봤던 풍경과 파도의 색을 기억하며 면 위로 옮겨놓았다. 머릿속에만 떠도는 기억을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칠했다. 생각을 칠해 바다를 만들었다.

[작품 4]와 [작품5]는 바다를 디지털화된 정사각형에 담는 시도였다. 현재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현실을 타인이 동일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에 두고 전시했다. 디지털 영상 매체는 인간이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풍경을 최대한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작품 7]은 추상 회화의 감성적 표현법에서 비롯한 작업이다. 본인이 인지하는 현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실한지는 알 수 없다. ‘나’와 ‘너’는 언제나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장면을 목격해도 서로가 기억하는 부분이 다르다. [작품 7]은 ‘나’의 기억을 표출한 작업이다.

[작품 7]은 [작품 4]를 촬영할 당시 본인이 인지했던 풍경과 온도 등을 수치가 아닌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회상하며 재구성한 작업이다. 감각에 의존해 현실을 재구현하는 작업은 당연히 당일의 풍경에 대한 회상, 예를 들면 그날 촬영한 사진과 확연히 다르다. 하지만 본인의 작업은 똑같은, 어떤 것을 재현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어낸 것들은 객관적이지 않으며 또한 본인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또다시, 이것을 보게 되는 관객이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의 작업은 무용지물인지, 작품이 ‘나’를 이해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 마치며

본인은 단절 속에서도 존재하고 존재의 무의미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들을 한다. '나'라는 존재는 이주로 인한 단절과 디지털 발전에 의한 단절에 절망하기보다 그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감정, 상태를 인지했다. 그리고 그러한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사건들을 도모함으로 발생하는 순간적인 에너지를 생성해 분리된 순간들을 일시적으로 연결했다. 완성된 결과물을 구축하기보다 본인의 틀을 깨트리기 위한 시도를 지속했으며 정해진 물질을 만들어내기보다 행동함에 따라 결과가 탄생하도록 했다. 잠시 존재할 것을 만들면 평범한 순간이 특별해지기도 한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한다. 일상이 매일 특별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하루의 기억으로 무미건조한 일상들을 버티도록 노력한다.

인간의 손은 기계보다 정교함과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단순한 거부감으로 기계의 유용성을 부정하기만 할 수도 없다. 더욱이 '나'라는 존재가 직접 만든 것들은 약하고 초라하며 순간 존재하고 사라질 뿐이다. 쉽게 무너뜨릴 수 있으며, 언제나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다. 일시적인 것들이라 하지만, 영원히 보이지 않아도 그 잔상은 무한하기에 의미가 있으며, 존재하지 않아도 행한 것은 그대로의 의미가 있기에 '나'는 다시 만들고 없앤다. 사람의 내면은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으로 작품을 만든다.

본인이 선택한 생각들은 본인의 무의식을 지배한다. 잠들기 두렵다고 생각한 날에는 반드시 악몽에서 깬다. 부정적인 꿈의 형태는 부정적인 현실을 만든다. 반대로 좋은 생각을 하고 잠들면 아침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 무의식에 지기만 했던 날들을 극복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작업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수동적인 사고방식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기에 이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본

인은 작업을 통해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좋은 세상으로 도달하기 바란다. 그렇기에 절망과 희망, 실패와 극복을 반복하는 작품들을 지속할 것이다.

"관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태양이 떴다고 하는 사실을 내일도 태양이 뜰 것이라고 하는 '신념'에 연결 시킨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신념'이란 바로 '관계'에 의해서 사고하는 것이고, 인식이란 사상의 사이를 관계시키고 관계를 믿는 것인 한 '신념'의 한 양태라고 할 수 있다…. 신념 그 자체는 때로는 심지어 환상이나 착란과 비슷할 것이다."[7]

7)우노 구니이치, 「들뢰즈, 유동의 철학」, 도서출판 그린비, 2008, p.51

# 참고 문헌

## 단행본

가스통 바슐라르,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93
우노 구니이치, 「들뢰즈, 유동의 철학」, 도서출판 그린비, 2008
질 들뢰즈, 「대담 1972~1990」, 도서출판 솔, 1993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새물결 출판사, 2003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2016
우치다 타츠루, 「말하기 힘든 것에 대해 말하기」, 서커스출판상회, 2019
Yasmine Abbas, Fred Dervin, 「Digital Technologies of the Self」,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09
차학경, 「딕테」, 서울: 토마토, 1997
롤랑 바르트, 「밝은 방 - 사진에 관한 노트」, 서울: 東文選, 2006

## 논문

Daniel Schlagwein, 「The History of Digital Nomadism」, 2018
김세희, 「한국 현대미술의 노마디즘(Nomadism)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미술경영 석사학위논문, 2013
김현, 「현대미술의 노마디즘적 경향과 이동성의 문제- 서도호와 김수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윤향기, 이경영 「<딕테>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언어 고찰」, 한국비평문학회, 2008, p. 297-321

# 작품 목록

[작품 1] <꽃과 나비 박스>, 60 x 30 x 180 cm, 박스, 한지, 테이프, 2017

[작품 2] <테이프 Kota Kinabalu>, 싱글 채널 비디오 , 3’00”, 2018

[작품 3] <테이프 관악>, 2 x 2 x 2m, 혼합재료, 2018

[작품 4] <20181025 Test 1 십리포>, 싱글 채널 비디오, 10’00”, 2018

[작품 5] <20181217 Test 2 사천>, 싱글 채널 비디오, 05’00”, 2018

[작품 6] <바다를 바라면 바다가 올까>, 가변 설치, found object, 도자, 유리구슬, 2018

[작품 7] <20181025 Test 1에서 비롯된 직사각형>, 60 x 60 x 50 cm, 합판, 아크릴 물감, 2018

# Abstract

## Nomadism, Disconnection and Reality Migration

Ji Soo Kim
January 2020
Master of Fine Arts, Sculp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Nomadism feeds not only character, but also a way of thinking and making. Having been raised in a large international city, I have adapted such nomadic tendencies. A constant in a fluctuating population, alien residents were of majority, and when relationships formed, they were bound to be short-term. Growing up in an impermanent environment, along with the surge of digital nomadism, has caused a heightened sense of a disconnection from reality, which plays an integral role in my practice.

The following research is a mere attempt to illustrate the aforementioned disconnected state, and the resulting self-reception. I am repeatedly in touch with this particular migration and with every instance, able to recognize it from a third person's perspective, thereafter, accepting its presence. Even so, the presented phenomenon vastly remains perplexing and ambiguous; in order to overcome its effects, a gesture is attempted. This action is embodied in the process of art making, taking forms of abstract sculptures, videos and installations.

With every migration, I simultaneously act to find points of agreement between the separated reality and self-reality. To do so in a concise

manner, each value is classified: “The Moving Body” is a definition of self as a nomadic character, and the inner conscience that moves in virtual space is “The Fixed Principle”. Subsequently, in “Making Gesture in Disconnection,” notable changes in mental state and gestures taken in period of disconnection are outlined. To follow, repetitions in material choices and their motives are dissected in detail. “The Foundation of Realistic Fantasy” revolves around the term “mass production” to connect fantasy and reality, and in “Reconstructing Cognitive Reality: An Artistic Landscape,” works derived from cognitive conceptualization are listed. On the contrary, both “Reconstructing Cognitive Reality: Apartments” and “Cognitive Process: The Sea” point to works that take direct inspiration from the physical world－apartments as buildings, as well as the correlation of the sea and the cognitive process. Altogether, these classifications are a means to methodize expression that results from the mentioned disconnected state in a more consistent manner.

Materials used in art making possess similar qualities: they are inefficient in nature and are mass-produced. For instance, medias like 3M box tape and craft paper are frequented, and each medium is treated to diverge from its specific purpose in everyday life. In turn, the two together are transformed into a work that blurs its own purpose. Other than combining two independent entities, other works, although composed of different mediums, share a quality that is similar on a material level. These convergences can be observed, as they share similar aesthetic qualities, or are selected with transparency and temporality in mind.

Even in the midst of disconnection, I stay in motion. Perceived reality is what stimulates/migrates the cognitive one, and in action, it fruits into a work of art that is a collection of temporary gestures and events. As

these works are a means of liberating a path from the cognitive reality rather than setting a pre-conceived objective, they are momentous and experimental in nature. Through process, I have experienced disconnection, despair, failure and recuperation, and these memories will be used as bedrocks of my future practice and outlook.

**Keywords: nomadism, disconnection, migration, imagination, mass production**

**Student Number: 2017-27402**